

버추(virtues) 활용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이 은 정¹⁾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이 연구는 버추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제주도 제주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총 8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버추 인성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의 5학년과 6학년 26명의 학생들로 구성하였고, 통제집단은 동일기간에 일반 수업을 받는 5학년과 6학년 26명의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자아탄력성 척도, 감성지능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및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버추활용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버추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감성 지능 및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즉 본 프로그램은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국내에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버추 활용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로서 향후 버추를 활용한 다양한 인성교육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버추, 인성교육 프로그램,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자아존중감

*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발전시킨 것임.

1) 교신저자 :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강사 (E-mail : i-lej@hanmail.net)

I. 서론

현대의 사람들은 사회전반에 걸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와 함께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때로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 게임중독으로 인한 자녀 방임 등 수많은 사례들이 뉴스 및 신문지상에서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무엇보다 인간성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또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따뜻한 감성을 지닌 인간미 넘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소홀히 할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각종 비도덕적인 행위와 무질서, 폭력, 자기중심적 사고 등 여러 가지 병리현상이 증폭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가정환경은 한 인간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즉 가정의 전반적인 배경이 자녀에게 전이되고 학습되어 사회화되거나 습관으로 정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들이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정교육을 소홀히 하여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인간, 무례하고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중심을 흔들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가족구조의 변화, 자녀수의 감소 등은 각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과보호와 무절제한 욕구충족 등은 자녀의 습관 형성 및 인성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자명하다. 김은정(2010)과 김지원(2010)은 최근 학업을 중요

시하는 한국의 사회적 현실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심리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가정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과 또래관계의 어려움, 집단 괴롭힘, 등교거부 등의 문제는 급증하고 있다(조미정, 최태산, 2011).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국가 및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지식과 학력 위주의 학교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사람답고, 도덕적이며 더불어 사는 사람,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사람을 길러 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바람직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그릇된 사회의 신념들을 바로 잡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와 도덕을 정착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즉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울 때 물질적인 풍요 못지않게 매우 안정적인 삶을 누릴 것이며,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성이란 이 말이 갖는 추상성 때문에 어느 한가지로 명확히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은 인성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인성은 한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며 사람됨(남궁달화, 2002)이므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며, 후천적으로 부모, 가족, 사회, 문화, 도덕적 측면이 끊임없이 추가되며 새롭게 변화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이나 사회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회의 인간 교육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인간교육에 대한 학교와 가정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학교는 가정교육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근절 대책의 하나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 및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을 위해 가족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교육으로 확산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를 동원하여 등하교 시간을 지키는 ‘학교 지킴이’ 운영, 경찰이나 검찰 등의 ‘학교 담당제’, 학교 구석구석에 ‘CCTV 설치’, 학생생활기록부에 폭력 가해자의 전과사실 기록 등을 통해 대학진학이나 취업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들의 자살률이 부쩍 높아졌으며, 위기청소년이나 일탈을 하는 청소년들 또한 급증했다. 이처럼 인성이 왜곡되고 말살된 사례의 예로 학교폭력과 왕따, 쓰레기 투기, 인신매매, 불법시위, 인터넷 익명성 뒤에 자행되는 폭언, 도덕적 해이현상(Moral Hazard)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성의 부재로부터 오는 시민정신이나 국가의식 수준이 후진성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균섭(2008)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성 개발’, 즉 ‘도덕적’ 지식을 암기하는 인성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

였다. 또 조난심(2004)은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한 실천적인 측면과 실효성이 매우 미비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장명림, 최은영, 김미나 및 백승선(2012)은 아직 인성교육의 정의와 내용에 대한 학자들 간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므로 인성교육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인성교육이란 말 그대로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서 마음의 바탕을 교육하고 사람 됨됨이를 교육하는 것이다. 다양하게 변화되는 사회의 현실에서 인성 또한 그 시대에 맞게 그 사회의 발전에 맞추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옥, 장명림 및 유희정(2009)은 바람직한 인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인 성장으로 개인 으로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전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보았다. 교육과학기술부(2011)에 따르면 인성교육이란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기르는 교육이며, 덕성을 바탕으로 교양과 능력을 겸비한 인간으로 기르는 교육이다. 또한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기존의 가치 교육이나 가치전수가 아닌 창의성과 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 또는 통합하는 교육으로서 주로 인간관계와 관련된 덕목과 도덕적인 판단에 필요한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다. 즉, 인성교육은 사람들의 타고난 성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하도록 촉진하는 활동 혹은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최상의 자질인 미덕을 일깨우고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인

버츠프로젝트와 지향점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버츠프로젝트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사람의 인성을 강화하는데 유효한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즉 버츠크(virtues)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잠재된 자원을 계발함은 물론 자기조절 및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강한 인성함양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버츠프로젝트는 청소년 폭력, 자살방지, 지역사회 의 갈등 해소, 기업의 조직문화, 군대의 병영문화 개선에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1994년 세계 가정의 해에 버츠프로젝트는 UN사무국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가정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의 전형”이라는 인정을 받았다(이은정, 2012; 한국버츠프로젝트, 2009).

버츠프로젝트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미덕(virtues)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섯 가지 전략을 통해 미덕 연마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버츠프로젝트의 다섯 가지 전략은 정신적 성숙을 위한 개인, 올바른 품성의 자녀를 바라는 부모,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화합을 증진시키려는 기업, 지역사회의 안녕과 복지를 추구하는 공동체 등을 위해 개발되었다(한국버츠프로젝트, 2010).

이에 본 연구자는 아동의 인성함양에 있어 많은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지만, 선행연구(박화윤, 안라리, 2006; 이찬숙, 현은자, 2008; 임현정, 2009; 정승민, 2005)를 통해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과 감성지능이 다른 변인에 비해 높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적으로 대처하는 개인의 적응능력인데, 이는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 개인이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변화 속에 잘 적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다뤄야 하고 삶의 변이를 통과해야 하며, 인생의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채호숙, 2008; Block, Kremen, 1996). 이병수(2011)에 의하면 감성지능은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어 양질의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데, 감성지능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집단원들로부터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수용력이 높으며, 양호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해야 하는 환경에서 높은 감성지능을 가질수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감성지능은 무한한 경쟁이 촉발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갖춰야 할 요소이다(이은정, 2012).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성 함양에 있고, 인생의 목표 또한 인성의 완성에 있으므로,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바탕으로 길러지는 그 사람됨(교육과학기술부, 2011)을 교육할 수 있는 실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바로 적용 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아이들에게 지, 정, 의를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개인적인 자아실현을 돕고, 나아가 사회적인 도덕적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형태상 가정, 학교, 사회교육으로 구분되는 바,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프로

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여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봄으로써 버추 인성교육을 지지하고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앞으로 보다 우리 현실에 맞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실적인 활용을 기대해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도덕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버추를 활용한 인성교육을 통해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그들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버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 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버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 보다 감성지능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버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제주시 소재한 ○○초등학교와 동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남녀학생이다. 최종적인 연구대상은 실험집단은 버추 인성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의 5학년과 6학년 26명의 학생들로 구성하였고, 통제집단은 동일기간에 일반 수업을

받는 5학년과 6학년 26명의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2. 측정도구

자아탄력성 척도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y Scale: ER)를 박은희(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질문지는 총 14 문항이며, 5가지 하위 요인(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역산 문항은 없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또한 대인관계 .67, 활력성 .51, 감정통제 .65, 호기심 .82, 낙관성 .65 이었다.

감성지능 척도

감성지능 측정도구는 Wong과 Law(2002)가 개발하고 Law, Wong과 Song(2004)의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WLEIS(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도구를 정현우(2007)가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정조절 및 감성활용의 총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총 16문항이다. 총점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으로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이었다. 자기감성이해 .89, 타인감성이해 .88, 감정조절 .86, 감성활용 .90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1974)가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3. 버추 활용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이 프로그램은 버추(virtues)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에 의해 잠정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상담심리 전공교수 1인과 상담심리 박사 2인,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인, 버추프로젝트 FT 자격을 갖춘 초등 고학년 담임교사 2인의 자문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이고 회기 당 활동시간은 60분으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 목표 및 활동 내용은 표 1과 같다.

버추프로젝트의 5전략을 활용하여 각 회기별 주제를 설정하였고, 각 전략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였다. 버추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은 버추프로젝트가 제안한 다섯 가지 전략을 토대로, 인류사회의 보편 가치인 미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통합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아름다운 것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힘든 세상(박원순, 2011)에서, 미덕을 통해 ‘재미없는 것에 재미를 붙여넣어, 삶을 즐겁고,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덕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을 각자의 삶과 모든 이의 일상, 그리고 세상 전체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버추프로젝트에서 상징하는 버추(Virtue), 즉 미덕은 ‘모든 사람의 인성에 숨어있는 가장 값진 가치’이며, 미덕은 ‘행복한 관계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과 미덕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미덕 연마가 일상의 습관이 되도록 안내한다. 즉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다양한 경험을 하게함으로써 근본적인 인간의 내면과 외면을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시키게 된다(이은정, 2012).

우리는 서로에게 잠재된 미덕이 빛나는 것을 일깨워 주고, 보석의 이름으로 그 미덕을 비추는 것은 그 미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서로의 능력을 격려한다. 즉 실제 그 힘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감사, 겸손, 용서, 사랑, 인내, 배려 등의 미덕연마를 통하여 자신의 인성을 계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매일 수없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미덕에 기초를 두어 한다면, 사람들은 인성을 일깨우게 된다(이은정, 김혜숙, 2012; 한국버추프로젝트, 2009; Popov, 2000).

표 1. 버추 활용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목표 및 주요활동

회기	주제	목표	주요활동
1	미덕여행 출발	인사, 버추프로젝트의 기본철학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미덕들을 만나본다.	* 미덕통장 만들기 * 학급의 울타리 * 미덕간판
2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성찰하고 미덕의 언어로 인정하는 방법을 관련 활동과 실례를 통해 익힌다.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쉽고도 재미있게 미덕을 연마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힌다.	* 버추카드뽑기 * 언어의 정화 * 3무3다 실천표
3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라	활동을 통해 실수의 기억을 털어내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를 배움의 순간으로 삼는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자신을 따라 다니는 부정적인 꼬리표의 실체를 밝히고 그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 꼬리표 떼기 * 내 마음의 보석
4	미덕의 울타리를 쳐라	개인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울타리를 미덕의 뜻말을 이용해 치는 방법을 익힌다.	* 나의 울타리치기 * 보석액자 만들기
5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라	다른 사람의 정신을 존중해 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최선, 최상의 것, 즉 미덕을 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안다	* 미덕의 방패 * 영감의 산책
6	정신적 동반을 제공하라	정신적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동반의 기술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다	* 명사의 미덕 * 마법의 단어
7	새롭게 태어나기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이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선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선행되어야 함을 안다. 또한 서로의 꿈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 미덕명함 만들기 * 장래희망보석
8	마무리와 통합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타임캡슐을 만들어 빛나는 미래를 상상해 본다.	* 타임캡슐 * 나의 소명

4. 연구 설계 및 절차

연구기간은 2013년 4월부터 7월이며, 연구 절차는 연구대상 선정, 사전검사, 프로그램 실시,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보조진행자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각 학년교실에서 주 1회 1시간씩 총 8회기를 실시하였다. 주 진행자로는 한국버추프로젝트 FT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다수의 개인 및 집단 인성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보조 진행자로

는 한국버추프로젝트에서 기초프로그램(버추프로젝트 워크샵)을 이수한 대학원생이 참가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버추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점수

집단 간 사후검사에서 각 척도 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실험집단은 모든 척도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및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및 자아존중감 척도의 사전·사후 점수

변인	집단	사전	사후	조정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오차)
대인관계	통제	7.58(2.27)	7.42(2.00)	6.69(1.13)
	실험	7.54(1.79)	8.46(2.02)	7.73(1.19)
활력성	통제	5.42(1.75)	5.15(1.49)	5.81(1.77)
	실험	5.38(1.44)	5.80(1.49)	6.46(1.77)
감정통제	통제	4.27(1.48)	4.61(1.67)	4.85(1.76)
	실험	4.38(1.39)	5.03(1.56)	5.28(1.77)
호기심	통제	11.54(4.04)	12.53(4.07)	14.47(1.87)
	실험	12.96(4.19)	13.53(4.40)	15.71(2.06)
낙관성	통제	4.85(1.51)	4.80(1.55)	4.39(1.75)
	실험	5.00(1.96)	5.50(1.88)	5.06(1.78)
자아탄력성 전체	통제	33.65(9.91)	34.53(9.39)	36.84(5.22)
	실험	35.27(9.29)	38.34(10.05)	40.75(5.44)
자기감성이해	통제	13.62(3.03)	14.07(3.33)	13.49(2.09)
	실험	14.38(3.91)	15.53(3.76)	14.91(2.20)
타인감성이해	통제	12.31(2.54)	13.50(3.07)	17.12(2.14)
	실험	12.35(3.57)	14.00(4.19)	17.63(2.15)
감정조절	통제	13.15(2.41)	13.23(3.50)	14.24(2.34)
	실험	12.30(3.64)	13.61(3.82)	14.56(2.20)
감성활용	통제	13.08(3.06)	13.23(3.50)	15.21(2.22)
	실험	12.77(3.92)	13.31(4.06)	15.24(2.08)
감성지능 전체	통제	52.15(9.66)	54.35(12.14)	60.50(9.01)
	실험	51.81(12.75)	56.46(14.14)	62.58(8.96)
자아존중감	통제	29.04(4.56)	27.73(4.47)	29.24(4.24)
	실험	28.35(5.84)	29.30(5.84)	30.78(4.14)

다. 통제집단은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 중 활
력성과 호기심 영역과 감성지능 척도에 대하
여 약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버추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증진
시켰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아탄력성

전체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28.66, p < .001$).
각 하위요인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 결과, 대인관계($F = 23.50, p < .001$),
활력성($F = 35.65, p < .001$), 감정통제
($F = 24.20, p < .001$), 호기심($F = 32.52, p < .001$),
낙관성($F = 21.62, p < .001$)은 집단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버추프로그램이 아동의 감성지능을 증진시
켰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하

표 3. 자아탄력성 척도의 공변량분석 결과

제 III 유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대인관계	공변인	1.95	1	1.95	.48
	집단간	192.69	2	96.34	23.50***
	오차	200.85	49	4.09	
	합계	3497.00	52		
활력성	공변인	1.93	1	1.93	.87
	집단간	159.32	2	79.66	35.65***
	오차	109.48	49	2.23	
	합계	1679.00	52		
감정통제	공변인	.31	1	.31	.12
	집단간	129.18	2	64.59	24.20***
	오차	130.80	49	2.67	
	합계	1345.00	52		
호기심	공변인	23.79	1	23.79	1.33
	집단간	1161.63	2	580.82	32.52***
	오차	875.13	49	17.86	
	합계	9752.00	52		
낙관성	공변인	1.14	1	1.14	.38
	집단간	130.08	2	65.04	21.62***
	오차	147.39	49	3.01	
	합계	1536.00	52		
자아탄력성	공변인	21.58	1	21.58	.23
	집단간	5507.39	2	2753.69	28.66***
	오차	4708.77	49	96.09	
	합계	73977.00	52		

*** $p < .001$.

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감성지능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 척도의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

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기감성이해($F = 23.32, p < .001$), 타인감성이해($F = 34.75, p < .001$), 감

표 4. 감성지능 척도의 공변량 분석 결과

제 III 유형 제곱합			<i>df</i>	평균제곱	<i>F</i>
자기감성이해	공변인	1.13	1	1.14	.09
	집단간	600.82	2	300.41	23.32***
	오 차	631.17	49	12.88	
	합 계	12062.00	52		
타인감성이해	공변인	41.46	1	41.46	3.20
	집단간	900.79	2	450.39	34.75***
	오 차	635.03	49	12.96	
	합 계	10511.00	52		
감정조절	공변인	2.84	1	2.84	.21
	집단간	597.54	2	298.77	21.92***
	오차	667.92	49	13.63	
	합계	10042.00	52		
감성활용	공변인	14.17	1	14.17	.986
	집단간	803.15	2	401.57	27.951***
	오 차	703.98	49	14.37	
	합 계	9874.00	52		
감성지능	공변인	89.30	1	89.30	.51
	집단간	8661.39	2	4330.69	24.70***
	오 차	8593.04	49	115.37	
	합 계	168359.00	52		

*** $p < .001$.

표 5. 자아존중감 척도의 공변량분석 결과

제 III 유형 제곱합			<i>df</i>	평균제곱	<i>F</i>
자아존중감	공변인	3.72	1	3.72	.14
	집단간	1520.89	2	760.44	27.62***
	오 차	1348.93	49	27.53	
	합 계	43679.00	52		

*** $p < .001$.

정조절($F = 21.92, p < .001$), 감성활용($F = 27.95, p < .001$)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전 자아존중감 척도 결과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에 대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 = 27.62, p < .001$)가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버추(virtues)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및 실시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버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따라서 버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버추프로젝트의 통합적 프로그램 접근을 통해 일상 생활속에서 미덕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과 피드백을 제공받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덕으로 인정하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관심을 얻음으로써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었고, 역동적인 게임과 활동을 통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을 하는

활력성의 증진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감정통제 연습과 일상생활에서 처하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이 유의미하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인정과 관심, 그리고 삶 속에서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낙관성의 요소도 연관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초등학교(왕연주, 2013), 유아(이수기, 2011) 및 일반인(이은정, 2012)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버추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적응도 잘한다는 고근종(2006)과 송영경(2006)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김봉주(2009)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가 높을수록 특히 교우관계 적응도가 높았다는 결과를 보면, 유연한 자아탄력성이 아동들의 또래관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자아탄력성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성격 자원의 구성개념으로 신체적, 인지적 변화 때문에 불안과 갈등이 고조되어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버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감성지능이 높아질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버추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버추카드 뽑기 및 다양한 음악의 활용으로 자기감성 및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울타리 치기’를 통해 스스로 감정조절 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으며, 그러한 느낌을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봄으로써 감성활용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치료 및 미술치료 관련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김영임(2006)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이 인성과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강효경(2004)은 명상활동이 유아의 감성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셋째, 버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지지되었다. 따라서 버추 활용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카드를 뽑고, 미덕통장에 기록하면서 삶의 주인은 자신임을 인식하였고, 친구들을 비난하거나 충고하거나 놀리지 않고 존중해주거나 인정하는 행위가 누적되면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이 되었으리라 사료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급변하는 현상속에서 버추 활용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자아탄력성과 감성지능을 높이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한다. 즉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임으로 사회적 지지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이는 스트레스를 낮추어 주어 초

등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운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자아탄력성 능력 및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방수산(2008)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추후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연구자라는 점, 척도가 자기보고식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객관적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버추(virtues)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로서 향후 버추프로젝트를 적용한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실시가 요구되며, 버추 활용 인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효경 (2004). 명상활동이 유아의 감성지수에 미치는 영향-만 5세아의 자기 감정인식 및 표현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근중 (2006).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

- 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
- 김봉주 (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 장명림, 유희정 (2009).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97-324.
- 김영임 (2006). 음악교육을 통한 감성학습이 청소년의 인성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 수준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원 (2010).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의 변화와 특성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궁달화 (2002). 인성교육. 서울: 문음사.
- 박균섭 (2008). 학교 인성교육론 비판. 교육철학, 8, 35-69.
- 박원순 (2011). 박원순의 아름다운 가치사전. 위즈덤하우스.
- 박은희 (1996).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화윤, 안라리 (2006). 만 3, 4, 5세 유아의 연령별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전략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6(4), 351-369.
- 방수산 (2008).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경 (2006).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연주 (2013). 창의·인성 미술교육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수 (2011). 액션러닝 코치의 감성지능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LCMX, TMX 및 GEIN의 매개효과 검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기 (2011). 유아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 연령, 다문화가정 변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정 (2012). 버추프로젝트를 활용한 예비부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정, 김혜숙 (2012). 버추 프로젝트에 근거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능력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S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1), 77-88.
- 이찬숙, 현은자 (2008). 유아의 기질, 사회적 유능감, 감성지능, 도덕성 및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9(3), 223-238.
- 임현정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자아개념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명림, 최은영, 김미나, 백승선 (201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방안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1), 107-130.
- 정승민 (2005).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숙

- 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우 (2007). 조직구성원의 감성지능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난심 (2004). 인성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 조미정, 최태산 (2011). 아동의 놀이성 군(群)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 연구. *인간발달연구*, 18(3), 37-51.
- 채호숙 (2008).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버츠프로젝트 (2009). 버츠헤크 워크북. 한국버츠프로젝트.
- 한국버츠프로젝트 (2010). 버츠헤크 퍼실리테이터 매뉴얼. 한국버츠프로젝트.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Law, K. S., Wong, C., & Song, L. J. (2004). The construct and criterion validity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potential utility for management stu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9, 483-496.
- Popov, L. K. (2000). *The virtues project educator's guide*. Torrence, CA: Jalmar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ng, Chi-Sum., & Law, S. L.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 243-274.

1 차원고접수 : 2014. 01. 16.

수정원고접수 : 2014. 02. 14.

최종게재결정 : 2014. 03. 04.

The Effects of Program Using the Virtues on Ego-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upon Senior Grade Students at Elementary School

Lee, Eun-jeong

Dept. of Human Ecology & Welfare, Jeju University

This study sought to test the effects of the Humanity Education Program with the use of the virtues of ego-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for senio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program has been conducted eight times fo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from the fifth and sixth grades in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Jeju-si, Jeju-do.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twenty-six students who were fifth- and sixth-graders of the school and hoped to take Humanistic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trol group consisted of twenty-six students who were the same grade level as the experimental group, but took normal classes over the same period. The measuring tools included the Ego-Resiliency Scale,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and Self-Esteem Scale and students with the higher scores meant they had better abilities in ego-resilien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ANCOVA was then carried out. Virtues are utilize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Humanity Education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gram encourages ego-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in senio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other words, it can be concluded that this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ego-resilien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Additionally, this research, which has rarely been conducted before, has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Humanity Education Program utilizing the virtues listed. Accordingly, the program is expected to make a contribution to Humanity Education research in the future.

Keywords : virtues, humanity education program, ego-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self-esteem